

# 溫故而知新



##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산업보건 사업은 국가경쟁력 즉 국민소득 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국민소득이 1만\$ 이상 정도가 되어야 자기 삶에 건강이 무엇이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다. 1980년대 후반까지도 직업병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고 일을 하다보면 누구나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질병은 나의 건강이 나빠져서 발생한 것이지 병의 원인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근로자는 물론 일반국민도 직업병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알고 있다고 보인다.

초창기에 황무지와 다름없는 곳에 산업보건이라는 뜻을 세우고 이 나라에 산업보건을 이루어 나가신 선배 어른들을 보면 정말 깊은 철학과 신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즈음 시대정신으로 보면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해외에까지 나가 공부하신 분들이 오로지 산업보건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온 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대단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진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종래에는 자기의 일을 버리고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과 근로자의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가끔 산업보건은 머리가 무지하게 큰 쟁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산업보건과 안전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안전에 비해 학력이 석사는 기본이요 박사들이다. 산업보건을 시작한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업보건 분야 전문 인력들에게 학력저하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부를 많이 하여 아는 지식이 많지만 정작 산업보건을 실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보면 어느 사업장이든지 안전관리실 또는 안전관리부는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필수적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하여 보건관리자는 없어도 안전관리자가 어느 정도 할



황 병 문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하부의 조직이 빈약한 상태였다.

아마도 이것은 안전에 비해 산업보전은 의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곤란한 전문분야 일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요인을 작업장 내에서 미량을 찾아내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며 전문지식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고는 굉장히 심각하고 긴급하게 해결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 반면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이환은 무서운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소음성난청자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생명과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죽음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가볍게 생각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업장내에 산업보건조직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환경기사가 들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질 당시 인력이 부족하여 환경기사도 산업보전을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리된 것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보건 발전과정은 연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은 농경사회이므로 산업장이 없었지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부터 석탄과 관련된 많은 질환들이 생겨났고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후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부터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공업중독이 발생되어 납 중독은 물론 망간중독, 수은중독, 카드뮴중독 등과 유기화합물에 의한 중독 등은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의 연료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원자력에 의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사능의 무서움은 증명이 되었고 피해가 일어나면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으로 발생될 것이다. 개정된 산업보건규칙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개의 장으로 들어가 있으며 매우 시기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업이 다양화, 자동화, 정보화 등으로 변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달라졌다.

작업관련성질환으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보건, 생산직종이 아닌 사무직 근무자도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오는 빌딩증후군 등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표면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렇다고 옛날의 일하는 근로자들은 조금 불편하여도 괜찮았는데 지금 근로자는 참지를 못한다고 나무랄 수는 없다. 옛것은 묻어두고 지금의 요구에 맞춰가야 하지 않으면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산업보건하면 산업의학전문,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 등 몇몇의 전문분야 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고정관념은 벗어버리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몫을 나누어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에도 이 분야의 일하는 사람들이 타 직종에 비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산업보건사업 역시 해야 할 분야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예술인들이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산업보건도 근로자라고 하는 한 인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질병이 발생된 후가 아니라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해나가는 종합건강관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산업보건 인들이 濫故而知新이라는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선배들의 열정과 철학을 물려받으며 새로운 학문과 경영방법을 습득하여 근로자들의 일터가 쾌적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